

발행일_ 2019. 3. 25 발행처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 이영찬

보건산업브리프 Vol. 280

통계분석 | 정책제도 | 동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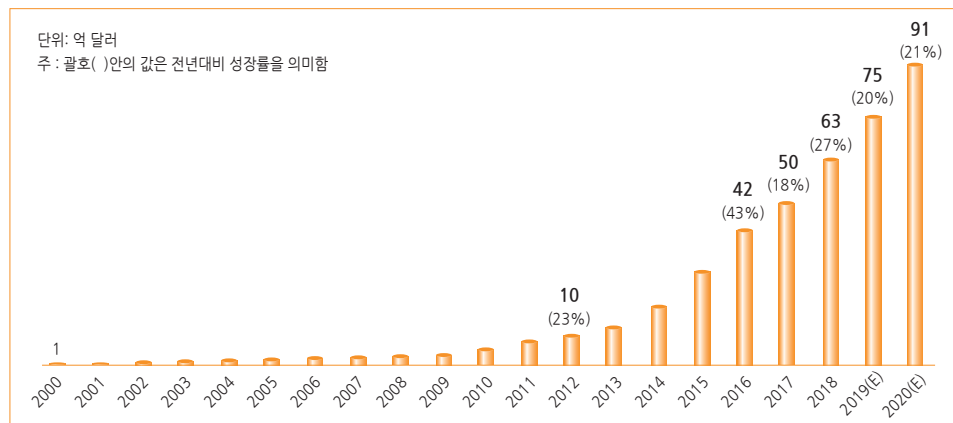
글로벌 화장품 수출경쟁력 분석 및 K-Beauty 시사점

산업통계팀
신민선

I 배경 및 목적

전 세계 화장품산업의 국제 비교 분석 결과 한국의 화장품산업은 교역량과 수출점유율에서 상위 10위권 이내로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화장품 유형에 따라 수출경쟁력의 양극화가 나타남. K뷰티의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동시에 정부차원에서는 선제적인 투자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K-Beauty(이하 K뷰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존재감이 크게 높아지면서 세계 트렌드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은 기존 중국 및 아세안 시장 수출 확대와 더불어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K뷰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 2018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전년대비 26.5% 증가한 63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함
 -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0%이상 고성장세를 지속한데다, 2014년 무역수지 흑자전환 이후 수출 규모가 더욱 확대된 결과임
 - * 화장품산업 흑자규모(억 달러): ('14) 5 → ('15) 15 → ('16) 27 → ('17) 34 → ('18) 46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0년까지 화장품 수출은 91억 달러(한화 약 10조원)를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¹⁾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그림1] 연도별 화장품 수출 전망 추이(2000~2020)²⁾

1) 보건산업 주요 이슈 & 전망, 2018 헬스케어이노베이션 포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11

2) HS코드 10단위 기준으로 작성됨

- 본고는 대세계 화장품 무역경쟁력 분석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분석자료 및 방법

○ 분석자료

- 자료원 : UN Comtrade 무역데이터
- 분석기간 : 최근 5개년 (2013~2017년) 연간 수출입 데이터
- 분석국가 : 2017년 세계 화장품 교역액 기준 상위 10개국 (한국, 중국/홍콩,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싱가포르, 스페인, 이탈리아)
- 품목분류 : HS Code 6단위 기준³⁾ 16개 해당 화장품 품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류)

유형군	HScode (6단위)	품목명
방향용제품류	330300	향수
눈화장용제품류	330420	눈 화장용 제품류
손발톱용제품류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색조화장용제품류	330491	화장용 파우더(압축포함)
	330410	입술 화장용 제품류
기초화장용제품류	330499	기타 기초화장용(약용제외)
	330790	기초화장용(시트마스크, 마스크팩)
두발용제품류	330510	샴푸
	330520	퍼머넌트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330530	헤어러커
	330590	기타 두발용 제품류
면도용제품류	330710	면도용제품류
목욕용제품류	330730	향을 첨가한 목욕용염과 그 밖의 목욕용제품류
체취방지용제품류	330720	인체용 탈취제 및 발한억제제(데오드란트 등)
인체세정용제품류	340111	비누 및 유기 표면 활성제(약용포함)
	3401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 크림 등)

3) HS코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 모든 상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제적 상품분류체계임. 7~10번째 숫자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6번째 숫자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함. 우리나라 HS코드는 10단위로 구성하고 있으며 본고가 분석한 수출입 6단위 기준과 수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석방법

■ 시장점유율(MS: Market Share)

특정시장의 총수출 중 해당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그 비율이 높을수록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MS_i = \frac{EX_i}{TEX} \times 100$$

EX_i : i 국의 화장품 총 수출 TEX : 전 세계 화장품 총 수출

■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각 품목의 수출입 차를 해당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의 합)로 나눈 값으로,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임. 무역특화지수는 $-1 \leq TSI \leq 1$ 의 값을 가지며 0에서 -1로 갈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아지며 0에서 +1로 갈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함

$$TSI_{ik} = \frac{X_{ik} - M_{ik}}{X_{ik} + M_{ik}}$$

X_{ik} : i 국의 k 상품 수출액 M_{ik} : i 국의 k 상품 수입액

■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각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특정 품목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데 널리 쓰임. RCA 지수가 1보다 클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제품의 수출 비중이 타제품의 수출 비중보다 높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RCA_{ij} = \frac{EX_{ij}/WEX_j}{TEX_i/TWEX} = \frac{EX_{ij}/TEX_i}{WEX_j/TWEX}$$

EX_{ij} : i 국의 j 상품 수출액, WEX_j : 전 세계의 j 상품 수출액(수입액)

TEX_i : i 국의 총 수출액, $TWEX$: 전 세계 수출액(수입액)

■ 수출경합도 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다는 가정 하에 특정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 정도를 보여줌. ESI 지수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양국 간 수출상품 구조가 유사하여 경쟁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

$$ESI(j,k) = \sum_i [\min(X_{ij}, X_{ik})] \times 100$$

X_{ij} : j 국 총 수출액 중 i 상품의 비중, X_{ik} : k 국 총 수출액 중 i 상품의 비중

III 분석결과

1. 세계 화장품 교역량(Trade) 분석

- 2017년 전세계 화장품 교역액(수출액+수입액)은 미국이 19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로 프랑스(184억 달러), 중국(홍콩포함, 176억 달러), 독일(146억 달러)순으로 나타남
 - 최근 4년간 미국과 유럽(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교역액 연평균성장률은 -0.2~4%에 그친 반면, 한국(26.4%), 중국(홍콩포함, 19.4%) 싱가포르(12.1%), 일본(11.7%)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연평균성장률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임
- 2017년 한국의 화장품 교역액은 65억 달러로 2013년(26억 달러) 대비 5년새 약 2.6배 성장하며 세계 8위국으로 자리매김함
 - 특히, 교역액의 연평균성장률은 26.4%로 10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액 성장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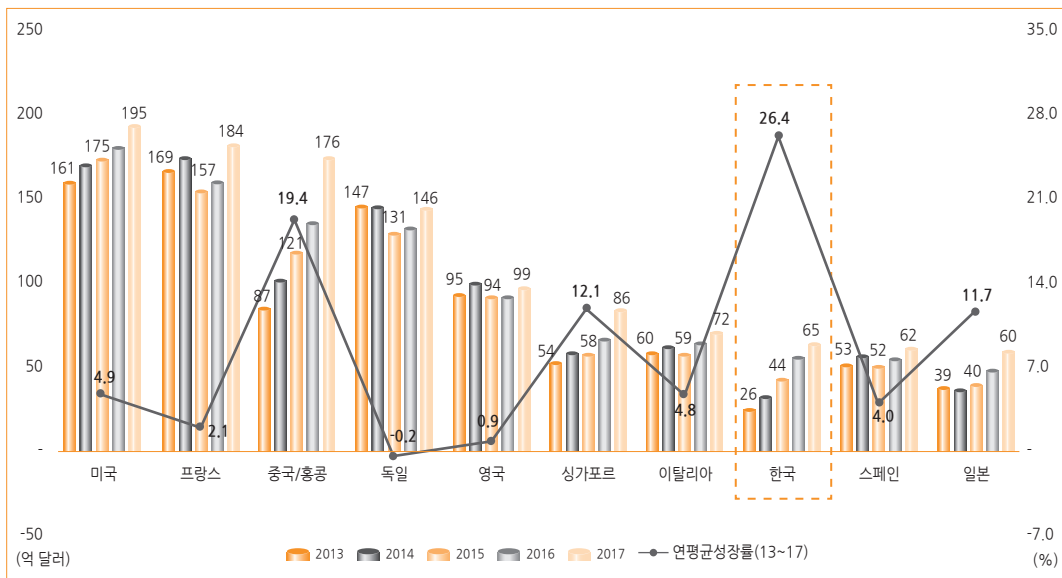
〈표1〉 주요국 화장품산업 수출입 및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13~'17)
미국	수출	8,628	9,005	9,152	9,285	9,935	3.6
	수입	7,513	8,118	8,299	8,909	9,575	6.2
	교역액	16,142	17,123	17,452	18,194	19,510	4.9
프랑스	수출	14,274	14,817	12,952	13,212	15,163	1.5
	수입	2,671	2,790	2,700	2,929	3,233	4.9
	교역액	16,945	17,607	15,652	16,141	18,396	2.1
중국/홍콩	수출	3,799	4,045	4,519	4,695	5,737	10.9
	수입	4,876	6,185	7,533	9,105	11,907	25.0
	교역액	8,676	10,230	12,051	13,801	17,644	19.4
독일	수출	9,049	9,049	7,883	8,078	8,521	-1.5
	수입	5,646	5,666	5,174	5,370	6,030	1.7
	교역액	14,695	14,715	13,058	13,448	14,551	-0.2
영국	수출	4,839	5,070	4,473	4,446	4,625	-1.1
	수입	4,688	5,054	4,888	4,889	5,250	2.9
	교역액	9,527	10,124	9,361	9,335	9,875	0.9
싱가포르	수출	3,062	3,385	3,382	3,995	5,191	14.1
	수입	2,381	2,493	2,450	2,806	3,392	9.3
	교역액	5,443	5,879	5,832	6,801	8,583	12.1
이탈리아	수출	3,921	4,095	3,928	4,489	5,013	6.3
	수입	2,081	2,162	1,935	2,104	2,236	1.8
	교역액	6,002	6,257	5,863	6,593	7,249	4.8

한국	수출	1,247	1,902	2,936	4,199	4,966	41.3
	수입	1,314	1,428	1,441	1,483	1,579	4.7
	교역액	2,561	3,329	4,377	5,682	6,545	26.4
스페인	수출	3,290	3,418	3,054	3,259	3,731	3.2
	수입	2,049	2,318	2,132	2,320	2,506	5.2
	교역액	5,339	5,736	5,186	5,579	6,237	4.0
일본	수출	1,485	1,548	1,860	2,682	3,666	25.3
	수입	2,399	2,241	2,135	2,273	2,376	-0.2
	교역액	3,884	3,789	3,995	4,955	6,042	11.7

자료: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자료: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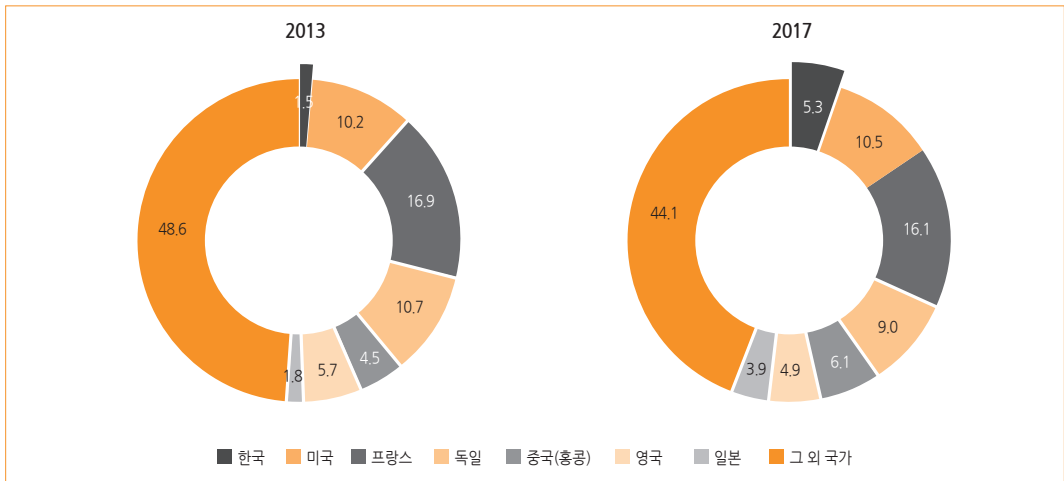
[그림2] 주요국 화장품산업 대세계 교역액 추이(2013-2017)

2. 세계 화장품 수출 시장점유율(MS) 분석

- 2017년 전세계 화장품 수출 규모는 약 942억 달러이며, 국가별로는 프랑스의 화장품 수출액은 152억 달러로 전세계 수출시장의 16%를 점하며 1위를 차지함. 그 뒤로 미국(10.5%), 독일(9.0%), 중국(홍콩포함, 6.1%), 싱가포르(5.5%)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을 포함한 중국(홍콩포함),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2013년 이후로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수출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반면, 전통적 화장품산업 수출 강국인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은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거나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 2017년 한국의 경우 전세계 화장품 수출시장의 5.3%를 차지하며 수출액 세계 7위를 기록함

 - 최근 5년간 수출액 규모는 4배 증가함에 따라 수출시장 점유율 역시 3.8%p 대폭 상승하였으며, 10개국 중 그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 한국의 화장품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13) 1.5% → ('15) 3.6% → ('17) 5.3%



자료: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그림3] 주요국 화장품 수출시장 점유율(201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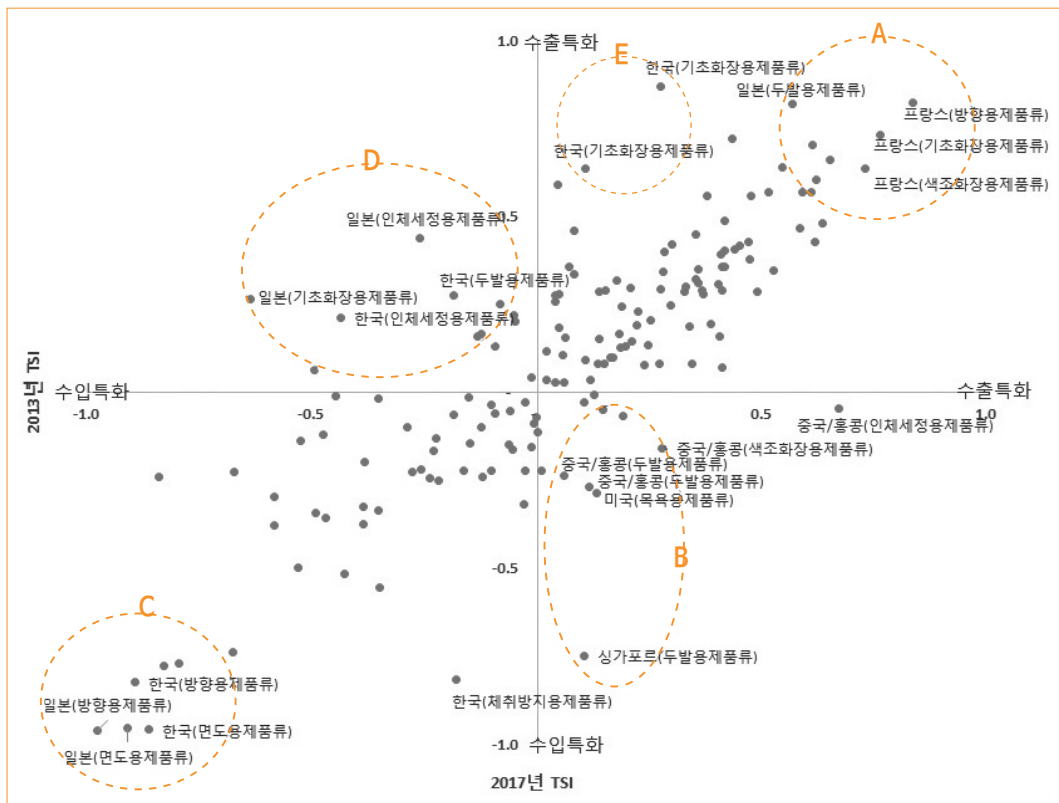
3. 세계 화장품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 2017년 프랑스의 무역특화지수(TSI)는 0.6으로 수출특화 1위국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한국(0.5), 이탈리아(0.4)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영국의 최근 5년간 TSI는 0.0~-0.1 사이로 수출 및 수입 규모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홍콩 포함)의 경우 수출 대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
- 한편, 2017년 한국의 화장품 TSI는 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2014년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최초 전환된 이후 지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2> 주요국의 대세계 화장품 무역특화지수 분석(2013~2017)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평균 ('15-'17)
프랑스	0.7	0.7	0.7	0.6	0.6	0.6
한국	-0.0	0.1	0.3	0.5	0.5	0.5
이탈리아	0.3	0.3	0.3	0.4	0.4	0.4
일본	-0.2	-0.2	-0.1	0.1	0.2	0.1
싱가포르	0.1	0.2	0.2	0.2	0.2	0.2
스페인	0.2	0.2	0.2	0.2	0.2	0.2
독일	0.2	0.2	0.2	0.2	0.2	0.2
미국	0.1	0.1	0.0	0.0	0.0	0.0
영국	0.0	0.0	-0.0	-0.0	-0.1	-0.1
중국/홍콩	-0.1	-0.2	-0.3	-0.3	-0.3	-0.3

- 국가별/품목별 TSI 분석 결과, 프랑스, 일본, 한국의 기초화장용품류, 이탈리아의 목욕용품류, 독일의 두발용품류 등이 대세계 수출특화이며, 한국의 방향용·체취방지용품류, 일본의 목욕용·손발톱용품류, 중국의 기초화장용품류 등이 대세계 교역에서 수입특화인 것으로 나타남
 - **A그룹(수출특화 지속 유지)** : 2013년 수출특화이며, 2017년 수출특화가 지속됨
 - * 프랑스 기초화장용·색조화장용·방향용품류 등이 해당됨
 - **B그룹(수출특화→수입특화 전환)** : 2013년 수출특화에서 2017년 수입특화로 전환됨
 - * 싱가포르 두발용품류, 중국 색조화장용·두발용품류, 미국 목욕용품류 등이 해당됨
 - **C그룹(수입특화 지속 유지)** : 2013년 수입특화이며, 2017년에도 수입특화가 지속됨
 - * 한국·일본의 방향용·면도용품류가 해당됨
 - **D그룹(수입특화→수출특화 전환)** : 2013년 수입특화에서 2017년 수출특화로 전환
 - * 일본 인체세정용·기초화장용품류, 한국 두발용·인체세정용품류가 해당됨
 - **E그룹(수출특화 강화)** : 2013년 수출특화이며, 2017년 수출특화정도가 강화됨
 - * 한국의 기초화장용품류가 이에 해당되며, 한국의 시트마스크(Facial Mask)를 포함한 화장품류의 수출이 크게 성장한 여파로 볼 수 있음
- 2017년 한국의 기초화장용품류는 2013년 대비 대세계 수출특화가 강화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발용·인체세정용품류는 수입특화(2013년)에서 수출특화(2017년)로 전환된 대표적인 유형으로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강화된 품목으로 분석됨
 - 반면, 향수를 포함한 방향용품류, 데오드란트를 포함한 체취방지용품류 품목은 여전히 수입특화가 지속되는 등 국내 화장품 유형군에 따라 무역특화지수가 상이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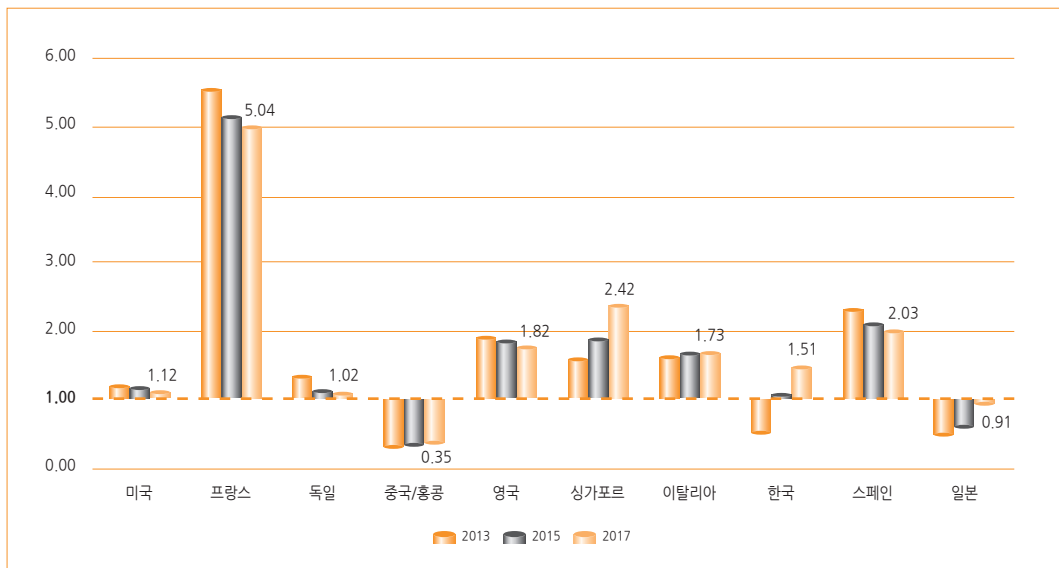
[그림4] 주요국의 화장품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변화(2013 VS 2017)

4. 세계 화장품 수출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

- 2017년 기준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 결과, 프랑스가 5.04로 화장품 수출의 독보적인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2.42), 스페인(2.03) 순으로 나타남
 - 일본과 중국(홍콩포함)을 제외한 모든 분석 국가의 대세계 화장품 비교우위지수는 1보다 큰 값을 가지며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화장품 선진시장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비교우위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2013년과 대비 모두 지수가 둔화된 양상을 보임
- 한국의 화장품 RCA지수는 2014년까지 1보다 작아 비교열위에 위치해 있었으나, 2015년 1.10을 기록하여 비교우위로 전환된 이후 꾸준히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

〈표3〉 세계 화장품 수출시장에서의 주요국 RCA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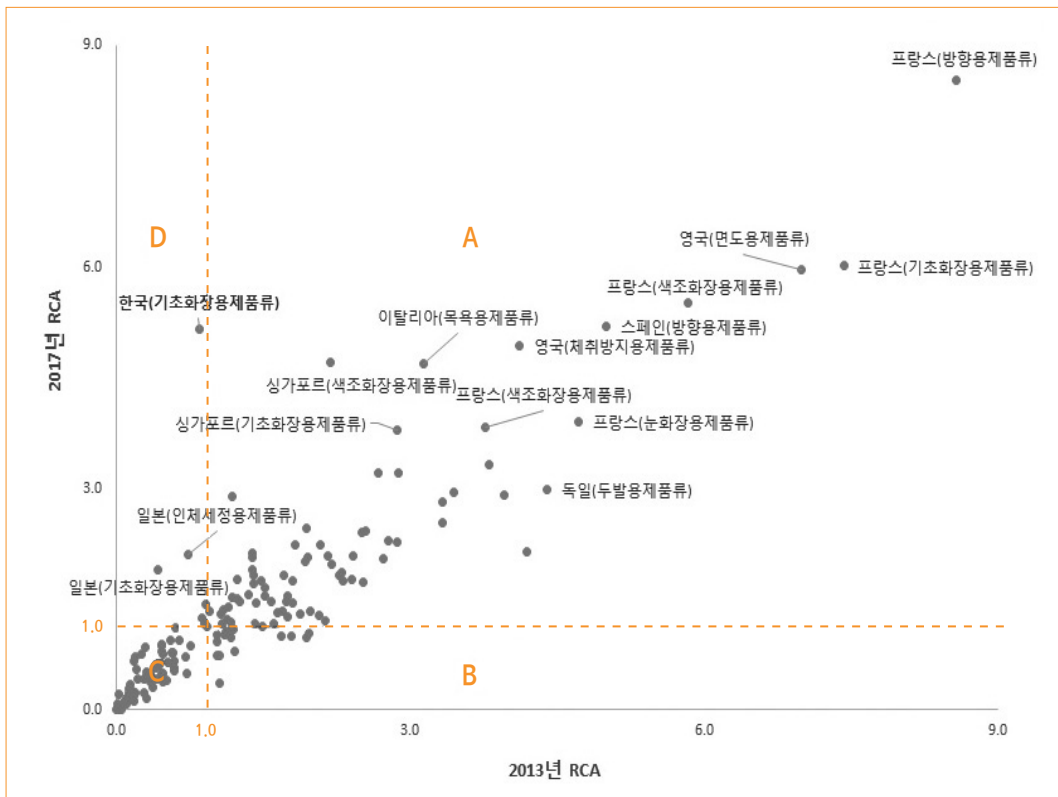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평균 ('15-'17)
프랑스	5.58	5.58	5.16	4.84	5.04	5.02
싱가포르	1.66	1.76	1.92	2.12	2.42	2.17
스페인	2.35	2.29	2.16	2.07	2.03	2.09
영국	1.96	2.12	1.89	1.94	1.82	1.88
이탈리아	1.68	1.65	1.69	1.74	1.73	1.73
한국	0.49	0.71	1.10	1.52	1.51	1.39
미국	1.21	1.19	1.20	1.15	1.12	1.15
독일	1.38	1.29	1.17	1.08	1.02	1.09
일본	0.46	0.48	0.59	0.75	0.91	0.76
중국/홍콩	0.31	0.30	0.32	0.32	0.35	0.33



자료: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그림5] 주요국의 화장품 RCA지수 변화

- 국가별/품목별 화장품 RCA지수 분석 결과, 2017년 프랑스 방향용제품류·기초화장용·색조화장용, 영국의 면도용제품류 등이 현시비교우위에 있으며, 한국·일본의 방향용·면도용제품류가 현시비교열위에 있음
 - **A그룹(비교우위 지속 유지)** : 2013년 비교우위에 있으며, 2017년에도 비교우위가 지속
 - * 프랑스 방향용·기초화장용제품류, 영국의 면도용제품류가 해당됨
 - * 한편,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품목이 A그룹에 해당되지만, 2013년 대비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상승폭이 둔화된 양상임
 - **B그룹(비교우위→비교열위 전환)** : 2013년 비교우위였으나 2017년 비교열위로 전환
 - * 프랑스 두발용·목욕용제품류, 독일 기초화장용·색조화장용제품류 등이 해당됨
 - **C그룹(비교열위 지속 유지)** : 2013년 비교열위에 있고, 2017년 비교열위가 지속됨
 - * 중국 면도용·인체세정용·두발용제품류 등이 해당됨
 - **D그룹(비교열위→비교우위 전환)** : 2013년 비교열위였으나 2017년 비교우위로 전환
 - * 한국 기초화장용제품류, 일본 기초화장용·인체세정용제품류 등이 해당됨
-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초화장용제품류의 비교우위가 5.2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수준 또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2013년 0.9 → 2017년 5.2). 한편, 기초화장용제품류(2개 품목)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품목들은 모두 비교열위(1이하의 값)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색조화장용제품류 등 일부 품목에서 그 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으로 보아 비교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 색조화장용제품류(2013년 0.3 → 2017년 0.8), 눈화장용제품류(2013년 0.5 → 2017년 0.9)



[그림6] 주요국의 화장품 품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 변화(2013 V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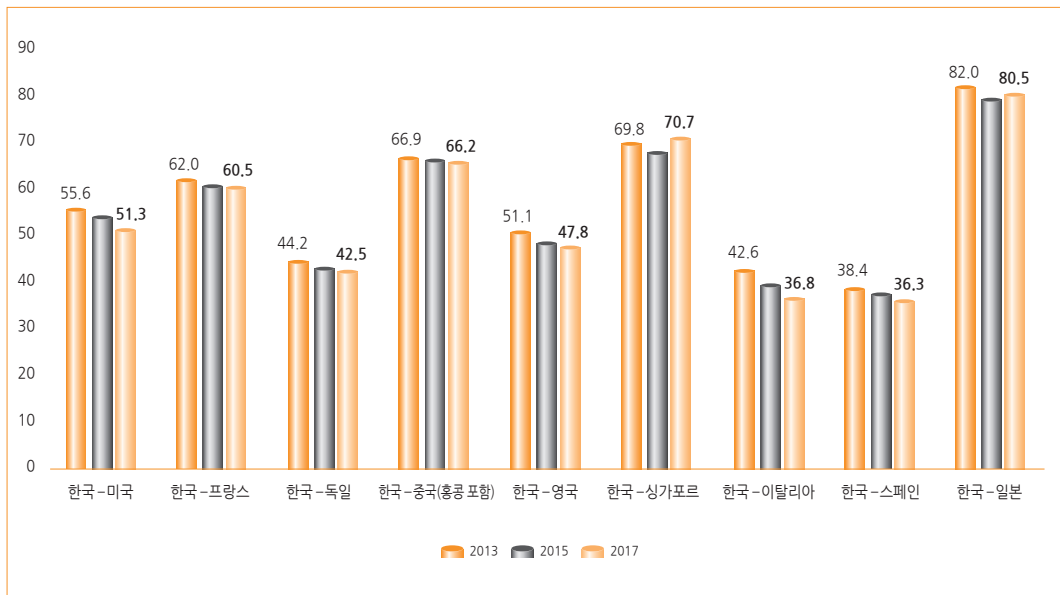
5. 세계 화장품 수출경합도지수(ESI) 분석

-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의 수출경합도지수는 일본(80.5) > 싱가포르(70.7) > 중국(홍콩포함, 66.2) > 프랑스(60.5) 순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간의 화장품 수출경합도지수는 2013년과 비교하여 경합지수가 미약하게 증가한 반면, 그 외 모든 국가와의 경합지수는 감소함
 - * 한국-싱가포르 간 화장품 수출 경합도 지수: ('13) 69.8 → ('15) 68.0 → ('17) 70.7
- 우리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중국(홍콩포함)등 아세안 국가들과 수출경합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경합지수가 낮게 나타남

(표4) 한국과 주요국 간 화장품 ESI 지수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평균 ('15-'17)
한국	일본	82.0	79.0	79.0	80.8	80.5	80.4
	싱가포르	69.8	70.8	68.0	71.0	70.7	70.1
	중국(홍콩포함)	66.9	65.9	66.3	67.3	66.2	66.8
	프랑스	62.0	61.7	60.7	60.5	60.5	60.5
	미국	55.6	54.4	54.0	51.7	51.3	52.1
	영국	51.1	49.8	48.6	48.3	47.8	48.0
	독일	44.2	43.4	43.0	42.0	42.5	42.3
	이탈리아	42.6	40.6	39.5	38.7	36.8	38.1
	스페인	38.4	38.8	37.7	35.9	36.3	36.5

자료: UN Comtrad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그림기] 한국과 주요국의 수출경합도지수 변화

IV 요약 및 시사점

- 2017년 전세계 화장품 수출 규모는 약 942억 달러이며, 국가별로는 프랑스의 화장품 수출액이 152억 달러로 전세계 수출시장의 16%를 점하며 1위를 차지함

 - 그 중 한국은 전세계 화장품 수출시장의 5.3%를 차지하며 수출 세계 7위를 기록함. 최근 5년간 수출액 규모는 4배 증가함에 따라 수출시장 점유율 역시 3.8%p 대폭 상승하였으며, 10개국 중 그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 한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 변화: ('13) 1.5% → ('15) 3.6% → ('17) 5.3%
- 2017년 프랑스의 무역특화지수(TSI)는 0.6으로 수출특화 1위국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한국(0.5), 이탈리아(0.4)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한국의 화장품 TSI지수는 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2014년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최초 전환된 이후 지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가별/품목별 TSI 분석 결과, 프랑스, 일본, 한국의 기초화장용제품류, 이탈리아의 목욕용제품류, 독일의 두발용제품류 등이 대세계 수출특화이며, 한국의 방향용·체취방지용제품류, 일본의 목욕용·손발톱용 제품류, 중국의 기초화장용제품류 등이 대세계 교역에서 수입특화임

 - 한국의 기초화장용제품류는 2013년 대비 대세계 수출특화가 강화된 품목으로 나타난 반면, 향수를 포함한 방향용제품류, 데오드란트를 포함한 체취방지용제품류 품목은 여전히 수입특화가 지속되는 등 국내 화장품 유형군에 따라 무역특화지수가 상이하게 나타남
- 2017년 기준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 결과, 프랑스가 5.04로 화장품 수출의 독보적인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2.42), 스페인(2.03)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의 화장품 RCA지수는 2014년까지 1보다 작아 비교열위에 위치해 있었으나, 2015년 1.10을 기록하여 비교우위로 전환된 이후 꾸준히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
- 국가별/품목별 화장품 RCA지수 분석 결과, 2017년 프랑스 방향용제품류·기초화장용·색조화장용, 영국의 면도용제품류 등이 현시비교우위에 있으며, 한국·일본의 방향용·면도용제품류가 현시비교열위에 있음

 -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초화장용제품류의 비교우위가 5.2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수준 또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색조화장용제품류 등이 비교열위(1이하의 값)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수준이 점차 개선되는 양상으로 보아 비교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의 수출경합도지수는 일본(80.5) > 싱가포르(70.7) > 중국(홍콩포함, 66.2) > 프랑스(60.5)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중국(홍콩포함)등 아세안 국가들과 수출경합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경합지수가 낮게 나타남
- 전 세계 화장품산업의 국제비교 분석 결과 한국의 화장품산업은 교역량과 수출점유율에서 상위 10위권 이내로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화장품 유형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상이하게 나타남. 따라서 경쟁력이 낮은 품목에 대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존 제품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국 수출경합도지수 분석 결과로 보듯 우리나라는 일본 및 중국 등 이웃국과의 경합지수가 매우 높고 여전히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한국 제품을 모방하는 이른바 ‘미투’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K뷰티의 브랜드 파워가 약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K뷰티 붐에 의지하는 대신 중국, 일본 제품 경쟁에 대비하는 노력이 요구됨
- 화장품 선진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K뷰티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주요 선진시장 소비자의 화장품성분에 대한 관심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성향에 대응한 전략 마련 등이 여전히 당면 과제로 남아있음
 - * 2017년 글로벌 화장품 유형 중 기능성 성분을 가미한 더마톨로지(Dermatology)시장의 전년대비 성장률이 5.7%로 전체 화장품 성장률(5.0%)을 상회하는 등 주요 선진시장에서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Euromonitor, 2018)
- 아울러 앞으로도 K뷰티가 한국 수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신소재·신기술 개발 등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에 필요한 선제적인 투자와 함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집필자 : 산업통계팀 신민선
- 문의 : 043-713-8527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HISS
 보건산업통계시스템
www.khiss.go.kr